

Original Article

동의보감의 ‘영인은형(令人隱形)’ 해석에 대한 고찰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학대학 한방내과학교실

Review on the Meaning of ‘Youngin Eunhyung’ in Dongeui-Bogam

Insoo J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Background: It has been some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 including ‘Youngin Eunhyung’ that was listed in the classic, *Dongeui bogam* (first published 16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another assumption to interpretate the meaning of ‘Youngin Eunhyung’ in the sentence.

Methods and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the quotation of the original text of the sentence. The original text was *Zhenglei bencao* (Categorized Pharmacopoeia) (First edition in 1082) by Tang Shenwei and *Shiliao bencao* (Pharmacopoeia for Healing through Nutrition). (First edition in 721-739) by Meng She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he missing of five chinese characters in the sentence of *Dongeui bogam*, that it meant that ‘to get rid of the watery pus in the anterior chamber of eyeball’. So, I understand that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related with one of the ophthalmologic disease. All the evidence supports this assumption, including the mystery of another sentence of the ‘blue dog’.

Conclus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treatment using in *Dongeui bogam* that means to alleviate the symptom of obstruction or indistinction of the vision field was caused by hypopyon. However, further scientific research is warranted to provide to support this opinion.

Key Words : Eunhyung, disappearing, hypopyon, Dongeui bogam, Korean medicine

서론

[동의보감(東醫寶鑑)](1613년 初刊)¹⁾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었다. 동의보감은 한국 한의학의 획을 긋는 대표적인 저작물로서, 16세기 동아시아의학 전반에 영향을 끼쳤으며, 방대한 내용의 자료와 독창적인 편집 방식, 철저한 참고문헌 인용은 당시로서는 매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서적이었다. 또한 종합의서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해리슨내과학’에 견줄 만하며,

한중일 3개국에서 여러 차례 재출판이 이루어졌던 의서이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고²⁾,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은 [동의보감] 잡방문(雜方門)에 기록된 ‘은형법(隱形法)’이며, 2 문장, 24자로 구성되어 있는 간결한 내용이다.

저자는 여러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영인은형(令人隱形)’이라는 문장의 해석이 기존의 견해와는

• Received : 3 March 2016

• Revised : 18 March 2016

• Accepted : 22 March 2016

• Correspondence to : 장인수

우석대부속한방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5

Tel : +82-63-220-8608, Fax : +82-63-220-8616, E-mail : mackayj@naver.com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견(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1. 동의보감의 ‘영인은형(令人隱形)’에 대한 기존의 해석

언론 등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이라고 소개된 부분은 [동의보감] 잡방문(雜方門)¹⁾에 있는 내용으로서 ‘隱形法: 白犬膽和通草桂心作末 蜜和爲丸 服能令人隱形 青犬尤妙 (本草)’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은형법: 흰 개의 쓸개와 통초, 계심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 꿀과 함께 환제를 만들어서 복용하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은형하게 하며, 푸른 개는 더욱 좋다 (본초)’

여기서 논란이 되는 문장은 ‘영인은형(令人隱形)’이라는 부분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은형하게 한다’라는 부분이며, ‘은형’이란 ‘모습을 감추다, 숨기다, 형상이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현대 중국어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습을 감추게 한다’, ‘모습을 숨기게 한다’ ‘형상을 사라지게 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장이 짧고 내용이 간략하며,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었다. 또한, 푸른 개(靑犬)에 대한 구절도 의문이다. 파란 색의 개가 존재하는지, 또한 파란 개가 더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영인은형(令人隱形)’이 포함된 문장이 제시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사용된 약재에 대한 검토

‘은형’과 관련하여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약재는

견담(犬膽), 통초(通草), 계심(桂心)이다. ‘견담(犬膽)’은 개의 쓸개를 말하며, 과거에는 흔하게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은 약재로 쓰이지 않는다. [본초강목]³⁾에서는 견담(犬膽)에 대하여 눈을 밝게 하고, 장중농수(腸中膿水), 목중농수(目中膿水)를 치료하며, 이출농(耳出膿) 등을 다스린다고 하여, 내장의 염증 질환이나 눈, 귀의 염증성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환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약재는 ‘통초(通草)’인데, 옛 문헌에서 말하는 통초는 오늘날의 ‘목통(木通 *Akebia quinata* DECNE)’을 말한다⁴⁾. 목통의 性味는 寒苦有毒하며, 瀉火行水, 通利血脈, 治小便赤澀의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성분은 akeboside, betulin, myoinositol을 함유하고 있고, 강한 이뇨작용과, 항염증작용, 그리고 gram 양성균 및 음성균에 억제작용을 가지고 있다. 한편 清熱解毒의 강한 효능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및 안과 질환의 급성 감염성 염증에 활용되며, 급성 결막염이나 외이도염 등에도 활용된다^{5,6,7)}.

마지막 약재인 ‘계심(桂心)’은 계수나무의 수피(樹皮) 즉, 계피(桂皮)의 겉껍질을 제거한 속 부분을 말하며, 육계(肉桂 *Cinnamomun cassia* PRESL)와 동일하다^{4,6)}. [동의보감]에서는 九種心痛, 破血, 止腹內冷痛, 一切風氣 通九竅利貫節, 益精, 明目, 暖腰膝 除風痺 등의 적용증에 사용한다고 언급되어 있다¹⁾. 또한 육계는 항균, 항염증작용이 강하다. 황색포도구균 (*Staphylococcus aureus*), 고초균 (*Bacillus subtilis*), 리스테리아균 (*Listeria monocytogenes*)은 물론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살모넬라균 (*Salmonella typhimurium*)에도 강한 항균활성을 보이며, 여러 염증성 매개물질에 대한 억제작용으로 항염증작용을 보인다^{7,8)}.

개의 쓸개(犬膽)와 함께 쓰인 목통(木通), 육계(肉桂)는 오늘날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에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널리 알려진 약재이자 독성이 없고 안전한 재료들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서너 가지 흔한 약재 또는 식품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허황되거나 믿기 힘든 효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에 기대어 희귀한 약재를 언급하거나, 따라하기 힘든 특별한 채취방법 또는 제조법을 과장하여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쉽게 검증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3. ‘은형’ 문장의 출전 문헌에 대한 검토

[동의보감]은 인용한 참고 문헌의 출처를 밝혀놓았다. 그렇다면, 원본이 되는 참고문헌을 확인하여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은형’에 대한 문장은 그 출처를 [본초(本草)]라고 명시하였다.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문헌 [본초]는 송대(宋代) 당신미(唐愼微)가 저술한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1082년 初刊, 이하 증류본초)를 말한다⁹⁾. (Table 1)

[증류본초]¹⁰⁾의 ‘牡狗陰莖篇’에는 개고기 및 개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는데, 이중 개의 쓸개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Table 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의 쓸개에 대하여 “膽主明目, 痲瘍惡瘡”

瘡”(개의 쓸개는 눈을 밝게 하고, 부스럼과 악창을 치료한다)라고 총괄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에 몇몇 제가(諸家)의 의견과 함께, 맹설(孟詵)의 말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膽去眼中膿水。又白犬膽，和通草、桂爲丸服，令人隱形。青犬 尤妙。

(개의) 쓸개는 눈 속의 농수(고름)를 제거한다. 또한 흰 개의 쓸개와 목통과 육계를 가지고 환을 만들어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형체를 안보이게 할 수 있다. 푸른 개가 더욱 좋다.

이를 살펴보면 [동의보감]과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부분은 [동의보감]에서는 없던 ‘膽去眼中膿水’가 포함되어 있다.

[증류본초]에서 인용한 원본은 당대(唐代)의 ‘맹설(孟詵)’이 저술한 [식료본초(食療本草)](721-739년 刊行)이다¹¹⁾. [식료본초]¹¹⁾를 보면 개의 쓸개에 대하여 3가지의 적용증을 분류해 놓았는데, 첫 번째로 장중농수(腸中膿水)의 제거, 두 번째로 눈을 밝게 하

Table 1. The Original Text of ‘Youngin Eunhyung’ in *Donggeui-Bogam*, *Zhenglei bencao*, *Shiliao bencao*, and *Bencao gangmu*^{1,3,10,11)}.

東醫寶鑑 許浚 (1613년)	雜病篇 隱形法: 白犬膽和通草桂心作末 蜜和爲丸 服能令人隱形青犬尤妙 (本草) 湯液篇 牡狗 膽... 性平味苦 有小毒 主明目 去眼中膿水 又去腸中膿水 療鼻臍瘰肉痲瘍惡瘡 又治撲損金瘡瘀血. 上伏日採熱酒調下久陳瘀血盡下 (本草)
證類本草 唐愼微 (1082년)	<目錄>卷第十七 <篇名>牡狗陰莖 '膽' 主明目, 痲瘍惡瘡. 臣禹錫等謹按鼻衄血通用藥云: 狗膽, 平。 藥性論云: 狗膽, 亦可單用. 味苦, 有小毒. 主鼻, 鼻中息肉. 孟詵云: 膽去眼中膿水. 又白犬膽, 和通草、桂爲丸服, 令人隱形. 青犬 尤妙. 日華子云: 膽, 主撲損瘀血, 刀箭瘡.
食療本草 孟詵 (721-739년)	膽: 去腸中膿水. 又, 上伏日採膽, 以酒調服之. 明目, 去眼中膿水. 又, 白犬膽和通草、桂爲丸服, 令人隱形. 青犬 尤妙. 又, 主惡瘡痲癢, 以膽汁敷之止. 膽敷惡瘡, 能破血. 有中傷因損者, 熱酒調半 個服, 瘀血盡下.
本草綱目 李時珍 (1578년)	獸部第五十卷 狗... 膽... (青犬、白犬者良) 【氣味】苦, 平, 有小毒. 曰: 魚插樹, 立便干枯; 狗膽塗之, 卻還榮盛. 【主治】明目 ([本經]. 鼎曰: 上伏日採膽, 酒服之). 敷痲瘍惡瘡 ([別錄]). 療鼻, 酒服半個, 瘀血盡下 (時珍). 治刀箭瘡 ([日華]). 去腸中膿水. 又和通隱形 (孟詵).

고(明目), 안중농수(眼中膿水)의 제거, 세 번째로 외용(外用)하여 악창과 부스럼(惡瘡痂癩)을 제거한다고 하였다(Table 1). 장중농수(腸中膿水)는 오늘날의 직장농양(rectal abscess)을 포함하는 대장농양(colon abscess)로 판단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동의보감에서 말한 ‘영인은형(令人隱形)’ 문장은 [증류본초](1082년)에서 인용한 것이며, 이는 [식료본초](721-739년)를 재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두 문헌 모두 ‘개의 쓸개’를 이용하여 안과 질환의 치료를 서술한 ‘안중농수(眼中膿水)’에 포함되어 있다.

4. 안과질환 치료에 있어서 ‘영인은형(令人隱形)’의 해석

‘영인은형(令人隱形)’ 문장의 인용 원문이 포함된

[증류본초], [식료본초]의 내용은 모두 견담(犬膽)을 사용한 안중농수(眼中膿水)의 치료에 맞춰져 있다^{10,11)}. 안중농수(眼中膿水)는 눈에 농수(고름)이 차서 고이는 안과 질환으로, 오늘날의 전방축농(hypopyon)을 포함하는 안구의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Figure 1). 전방축농이 생기면, 안구 앞쪽의 전방(anterior chamber)에 고름이 차게 되어 시력이 나빠지고, 시야가 모호해지면서 눈앞에 무언가 낀 듯한 흐릿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영인은형(令人隱形)’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앞에 무언가 형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사라지게 해 준다’고 해석해야 맞는다. 안구 수정체 앞에 농이 고여 차오르면서 시야가 아른아른해지는 증상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약재 분석에서 견담(犬膽), 목통(木通), 육계(肉桂)는 모두 소염,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세 약재 모두 오래 전부터 안과질환의 치료에 쓰였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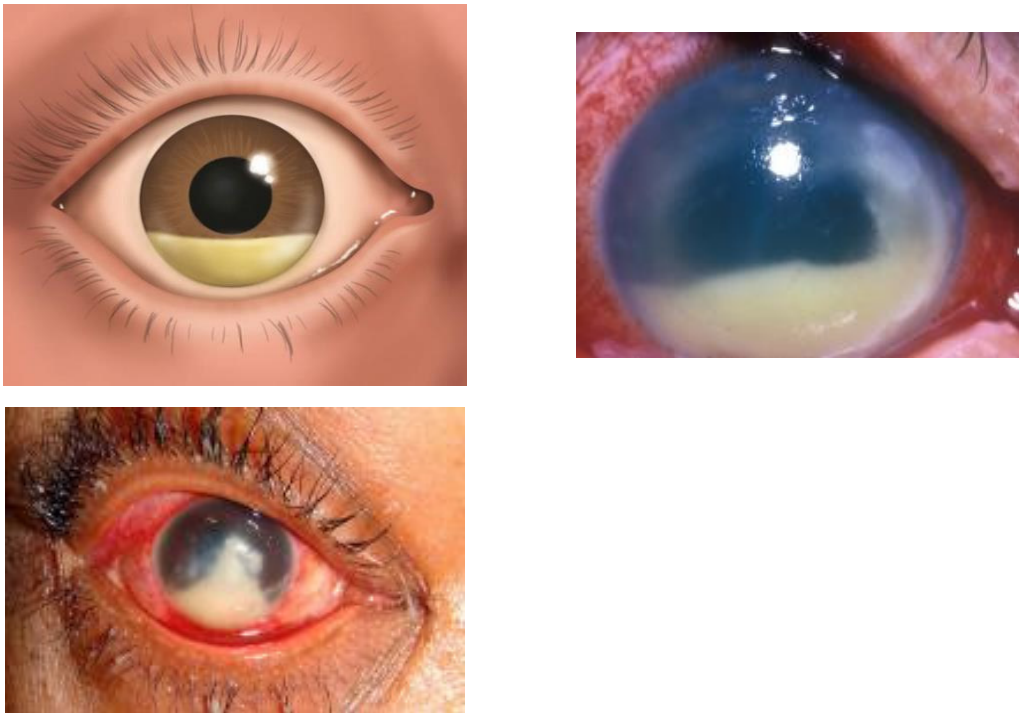


Fig. 1. The hypopyon in the eye, It has obstructed the field of vision by watery pus in the anterior chamber of the eyeball.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안과 질환의 치료로 해석된다면, 앞에서 제시했던 푸른 개(靑犬)에 대한 의문도 풀리게 된다. 오행 배속(五行配屬)에 따르면, 눈은 오행 중에서 木에 해당되며 청색은 木의 기운에 속한다. 따라서 눈에 발생하는 目疾患에는 白犬(흰 개)보다는 靑犬(푸른 빛이 도는 개)의 쓸개가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靑犬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귀견(鬼見)과 은형(隱形)

동의보감에서 은형법은 잡방문(雜方門)의 견귀방(見鬼方)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¹⁾. 견귀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要見鬼者 取生麻子 石菖蒲 鬼臼等分 爲末 蜜丸彈子大 每朝向日服一丸 服滿百日 卽見鬼(本草)

‘귀신을 보고 싶은 사람은 ‘대마의 씨(麻子仁)’와 석창포(石菖蒲), 귀구(鬼臼)를 각각 나누어 가루를 만든 다음, 환약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해를 바라보며, 한알씩 100일간 복용하게 되면 귀신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동의보감에 실제로 ‘귀신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동원 등은 견귀(見鬼)를 ‘귀신을 본다’고 하지 않고 ‘헛것이 보이는 법’이라고 해석하였는데²⁾, 한의서에서 언급된 견귀(見鬼)의 의미는 대부분 환각(hallucination)을 말한다. 위에서 견귀법에 사용된 처방을 살펴보면, 대마(大麻)의 씨와 석창포, 귀구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대마초로 알려진 대마(大麻)는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증류본초]와 [동의보감]에서도 ‘대마의 씨앗을 많이 복용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광증을 보이며 미쳐서 날뛰게 된다(多食令鬼狂走)’라고 기술하여^{1,10)}, 환각 작용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의 임상에서 사용하는 대마의 씨앗, 마자인(麻子仁)은 환각작용과 관련이 있는 중

자의 껍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환각작용이 없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는 종자의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생마자(生麻子)를 사용하였으므로 충분히 환각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100일간 대마의 씨앗 등을 복용하면서 아침마다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시각 자극에 의해서 충분히 환각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견귀방은 ‘귀신을 보는 처방’이 아니라 ‘환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각을 유발하는 방법을 왜 기록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의보감 ‘잡방문’의 특성상 기술된 내용이 질병 치료라기보다, 생활의 상식이나 기이한 방법을 모아놓았다는 특징이 있다. 문자 그대로 ‘잡다한 방법’을 모아놓은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양에서도 중세 시대에는 가지과(茄仔科) 식물인 nightshade family의 *datuna*, *belladonna*, *henbane*, *mandrake* 등의 식물을 복용하고 환각을 즐기는 행위가 오랫동안 유행하기도 하였다¹³⁾.

고찰 및 결론

지금까지 동의보감 잡방문의 ‘영인은형(令人隱形)’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인은형’은 [식료본초(食療本草)](721-739년 刊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후 [증류본초(證類本草)](1082년 初刊)에서 재인용되었던 부분을 [동의보감](1613년 初刊)에서 원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식료본초]에와 [증류본초]에서 나오는 동일한 문장의 원 뜻은 안중농수(眼中膿水)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과 질환의 치료에 대한 이 문장은 동의보감에 원문 그대로 옮겨지면서, ‘안중농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은형법’이라고만 표기된 채, 잡방문에 포함된다. 그 의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야기하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일체의 설명 없이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은형법’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견귀방’ 역

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귀(見鬼)란 환각을 의미하며, [난경집주(難經集注)](1652년 刊行)에서도 ‘脫陽者 見鬼(양탈하면 헛것이 보인다)’라고 언급하면서, ‘脫陽者, 無陽氣也... 故目中妄見而睹鬼物焉(양탈하면 양기 없게 된다. 그러므로 눈에 망령된 것이 보이고, 허깨비가 보이게 된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¹⁴⁾. ‘견귀방’에서는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여 헛된 것을 보는 방법을 기록하였다. 저자의 견해로는 동의보감에서 나란히 기술된 ‘견귀법’과 ‘은형법’이 대구(對句)를 이루면서 상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견귀법(見鬼法)이란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여, ‘헛것을 보는 방법’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다. 은형법(隱形法)이란 약물을 복용하여 ‘형상을 없애는 방법’이며,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또 ‘견귀방’이란 아무 것도 없는데, 환시를 일으키는 방법이고, ‘은형법’은 실체가 아닌 눈앞이 흐리게 보이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의서 안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잡방문이 의료와 거리가 있는 ‘잡스러운 방법’을 모아놓은 백과사전 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의 저자는 안과질환에 쓰이는 약물 치료법을 왜 잡방문에 가져다가 놓았을까? 또한 안과 질환을 의미하는 ‘안중농수(眼中膿水)’를 왜 빼버렸을까? 동의보감의 저자가 잡방문에서 은형법을 별도로 기록한 뜻은, 이 치료법을 염증성 안과질환 이외의 다양한 안과의 증상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안경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30대 후반이 넘어서면 대부분의 사람이 시력이 저하되며, 백내장을 비롯한 안과 질환은 물론이고, 시야를 가리게 하는 비문증 (myodesopsia), 시야흐림 (blurred vision) 등은 특수한 질병이 아니라 나이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것이었던 옛 시절 임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안과 염증성 질환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처방을 폭넓게 활용하여, 일반적인 시력 약화와 노안(老眼)으로 인한 ‘시야흐림’

의 모든 증상에 적용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아울러 한의학에서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질병에 있어서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황제내경(黃帝內經)](BC 4세기 ~ AD 1세기)의 [靈樞 賊風篇]에서 ‘병의 발생이 귀신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결코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으며,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였다¹⁴⁾. 또한 [素問 五臟別論篇]에서는 ‘질병을 치료할 때에는 어떤 경우이든 반드시 환자의 대소변의 상태를 조사하고 맥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 정신의 상태와 그 病狀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신에 썩여 신비한 것을 지껄이는 무리와 더불어 의료의 진수에 관해서 말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정신은 동의보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동원¹²⁾은 ‘흔히 민간에서 귀신이 들렸거나 허깨비에 썩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그러한 존재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을 가하고 있다. 즉 그러한 현상들은 원기가 부족하고 기혈이 허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동의보감을 포함하는 한의학의 기본 정신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 현상의 원인을 귀신이 아닌, 과학적인 인과론에서 찾고 병인과 병리적 기전을 밝혀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투명인간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의견과 주장이 나왔다. 양승엽¹⁶⁾은 ‘은형법’에 대해서 당시가 임진왜란 직후인 전란 시대였으므로, ‘왜적이나 도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안심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동원¹⁷⁾은 [동의보감]의 편찬 동기가 전란과 무관하며, [동의보감]의 사회적 의미가 전란복구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형법에서 등장하는 ‘육계’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

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중국 복건, 광서, 광둥, 운남이 주산지이다^{4,10}. 은형법과 함께 나오는 ‘견귀방’에서 사용된 귀구(鬼臼) (*Dysosma versipellis* M. Cheng)^{1,10,18})는,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에서만 자라는 매자나무과 식물로서, 한반도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¹⁹. 아울러, 세종 6년에 대체학 변계량을 불러 만든 [세종지리지]에서는 국내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토산품과 약재를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도 육계나 귀구는 발견되지 않는다²⁰. 이처럼 육계와 귀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약재인데, 국내산 향약(鄕藥)이 아닌 약재를 전란 중의 일반 백성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은형법’이 백성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은형법’ 처방에는 안신(安神)효과가 있는 약재가 없다. 더군다나 정말 전란시의 상황이라면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백성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은형법이나 견귀방은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창작 처방이 아니라, 모두 ‘증류본초’에서 원문 그대로 재인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석준은 동의보감의 ‘견귀방’은 ‘현귀방’으로 읽어야 하고, ‘은형법’과 함께 둘 다 ‘헛것이 보이는 질환’에 쓰는 처방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21,22}. ‘見’ 자는 문장 앞에 오면 대체로 ‘현’으로 발음하며, ‘드러나다’의 의미로 쓰인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가설이나, 처방 내용을 검토해보면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마씨’가 있으므로,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의료적인 치료법과는 무관하지만, 잡방문의 특성상 비의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백과사전 스타일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강연석²³)은 일부 의학계에서 동의보감을 폄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명인간이 되는법, 귀신을 보는 법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거의 식민사관에 맞춰져있다고 하였고, 김남일²⁴)은 동의보감의 저술 태도를 언급하며, 이런 내용들은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녹여려했던 노력에서 비롯된 작은 부분이며, 이를 과학적인 검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동의보감이 지닌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광범위한 포괄적 고찰과 문화적, 인류학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 잡방문(雜方門)에 나오는 ‘은형법’의 해석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영인은형’을 포함하는 문장이 눈에 고름이 차는 안중농수(眼中膿水)를 치료하는 치료법임을 확인하였으며, 오늘날의 전방축농(hypopyon)을 포함하는 안구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여 증상을 개선시키는 처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염증성 안과 질환에 사용하는 처방을 이용하여 비염증성 안과질환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시야가 흐린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을 넓히고자 잡방문(雜方門)에 넣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안경을 착용하는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시야의 흐림이나 비문증, 노안(老眼) 등의 시력 장애를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16세기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시력 저하에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내용이 투명인간이 되는 법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데에는 최초 한글 번역본인 허민(許珉)의 상역(詳譯)동의보감(1962)이나, 남산당(南山堂)의 국역증보 동의보감(1969), 그리고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동의보감(1982)에서 모두 ‘얼굴을 숨기는 법’²⁵, ‘형체를 숨기는 법’²⁶, ‘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²⁷)으로 번역하면서 출발하게 된 바가 크다. 여기에 동의보감 ‘잡방문’이 의료 지식과는 무관한 엉뚱한 내용들이 많다면,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여져서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현의 글귀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재인용하는 동양의 오랜 전통이 있어왔고, 해당 문장에 대해 인용 서적의 원문을 대조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서 추가적인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Heo Jun. *Dongueui bogam* (First edition in 1610). Seoul: Namsandang. 2001: 597, 697, 738.
2. Yu SJ. How to be the invisible man in *Dongueui bogam*. 2009. Available at: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8/2009082801245.html. Accessed accessed February 28, 2016
3. Li SZ. *Bencao gangmu*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First edition. Seoul: Iljungsa. 1991:2719.
4. Ju YS. Ungok Special Herbology Vol. 1. Seoul:Seorimjae. 2004:445, 451, 490-1.
5. Chen CR. Explanatory diagrams of Chinese herbology. Vol.2. Seoul:Song-ak. 1988:88-91.
6. Chen Cunren. Explanatory diagrams of Chinese herbology. Vol.3. Seoul:Song-ak. 1988:272-5.
7.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medical pharmacology. Korean medical pharmacology. Seoul:Shinil books. 2015:150-8, 658-9.
8. Kim HJ, Do EJ, Lee G. Investigation of Anti-microbial Activity of Herbal Medicines Used as Natural Preservatives Based on the Analysis of Papers and Patents.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15;29(1):101-3.
9. Kim HC. *Zhenglei bencao*, the Pharmacopoeia have been using by Dr. Heo Jun, in Chosun dynasty. 2011. Available at: URL: <http://www.akomnews.com/?p=284630>, Accessed Feb 28, 2016.
10. Tang SW. *Zhenglei bencao* (Categorized Pharmacopoeia). First edition. Seoul: Iljungsa. 1992: 317, 564.
11. Meng S. *Shiliao bencao* (Pharmacopoeia for Healing through Nutrition). First edition. Seoul: Iljungsa. 1992: 24.
12. Shin DW, Kim NI, Yeo IS. Reading ins a book, *Dongueui bogam*. Seoul:Dulneok. 1999: 628, 682.
13. Müller JL. Love potions and the ointment of witches: historical aspects of the Nightshade alkaloids. *Clin Toxicol*. 1998;36(6):617-27.
14. Wang JS, Wang WY. *Nanjing jizhu*. First edition. Southwest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2008:31-2.
15. Long BJ. Introduction to *Huangdi Neijing*. Translation Ed. Seoul:Nonjang. 1988:52-55.
16. Yang SY. *Dongueui bogam* and the invisible man. 2 years after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2011. Available at: URL: http://cnbnews.com/m/m_article.html?no=144226. Accessed Feb 28, 2016.
17. Shin DW. Heo J, a man in Chosun dynasty. Seoul:Hangyoresinmun. 2001:77-81, 83-85, 211-214.
18.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Dysosma versipellis*. Available at: URL: <http://www.koreantk.com/ktkp2014/medicine/medicine-view.view?medCd=M0000461>. Accessed Feb 28, 2016.
19. Wikipedia. *Dysosma*. Available at: URL: <https://en.wikipedia.org/wiki/Dysosma>. Accessed Feb 28, 2016.
20. Kim DJ. The investigation of the distribution of *Hyangyak* and the Geographics of the King Sejong. In *Korean medical history*. Seoul: Tamgudang. 1981:208-214.
21. Park SJ. Talk about the science in *Dongueui bogam*. Seoul: Bao Publishing. 2015: 97-8.
22. Park SJ. the Eunhyung method. *Minjokeuhaksinmun*. 2011. Available at: URL: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0>. Accessed Feb 28, 2016.

23. Kang YS. Studying *Dongeuui bogam* for not to be an invisible man. 2009. Available at: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2571. Accessed Feb 28, 2016.
24. Kim NI. To treat your heart firstly, to treat your illness. 2013. Available at: URL: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57>. Accessed Feb 28, 2016.
25. Heo J. (Translated by Heo Min). *Sangyeok Dongeuui bogam* Vol.2. First edition. Daegu: Education Division of Dongyang Jonghaptongsin College. 1969:41.
26. Heo J. (Translated by the Korean *Dongeuui bogam* Translation Committee). *Gukyeok Jeungbo Dongeuui bogam*. First edition. Seoul: Namsandang. 1969: 946.
27. Heo J. (Translated by Dongeuihak Research Institute). *Dongeuui bogam* Vol. 3. First edition. Seoul:Yeogang Publishing. 1994:2223.